

일에는 늘 오빠의 칭찬과 입맞춤이 뒤따랐다네. 한시도 몸을 쉬지 않던 폴은 도맹그와 함께 뜰을 일구거나 작은 도끼를 손에 들고 그의 뒤를 쫓아 숲으로 들어가곤 했네. 이런 용무 중에도 예쁜 꽃이나 맛있는 과일, 혹은 새 동지가 보이더라도 하면, 그것이 아무리 나무 높이 있더라도 동생에게 가져다주겠다고 기어이 나무에 올라 따오곤 했지.

어디서든 두 아이 중 한 명을 만나면 분명 다른 한 아이도 멀리 있지 않았다네. 어느 날엔가 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다가 나는 정원 언저리에서 집 쪽으로 달려가는 비르지니를 보았네. 소나기에 몸을 피하느라 속치마를 뒤로 들쳐서 머리에 뒤집어쓰고 있었어. 나는 멀리 있어서 비르지니가 혼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잘 걷게끔 도와주려고 다가가다가 비르지니가 폴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네. 담요 하나로 거의 온몸을 둘러싸고 있던 두 아이는 자기들이 발명한 우산으로 함께 비를 피하며 서로에게 웃음 짓고 있었지. 불룩해진 속치마 안에 들어 있던 두 아이의 앙증맞은 머리는 하나의 조개껍질 안에 둘러싸여 있던 레다의 아이들●을 떠올리게 했다네.

폴과 비르지니가 배우는 것이라곤 서로를 기쁘게 하고

---

● 니오베(Niob)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바이의 왕 암피온의 아내. 아들 일곱과 딸 일곱을 낳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으나, 자만심에 들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 레토 여신보다 자신이 더 훌륭하다고 자랑하다가 레토 여신의 화를 샀고, 결국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 의해 자식 열넷이 모두 죽임을 당한다.